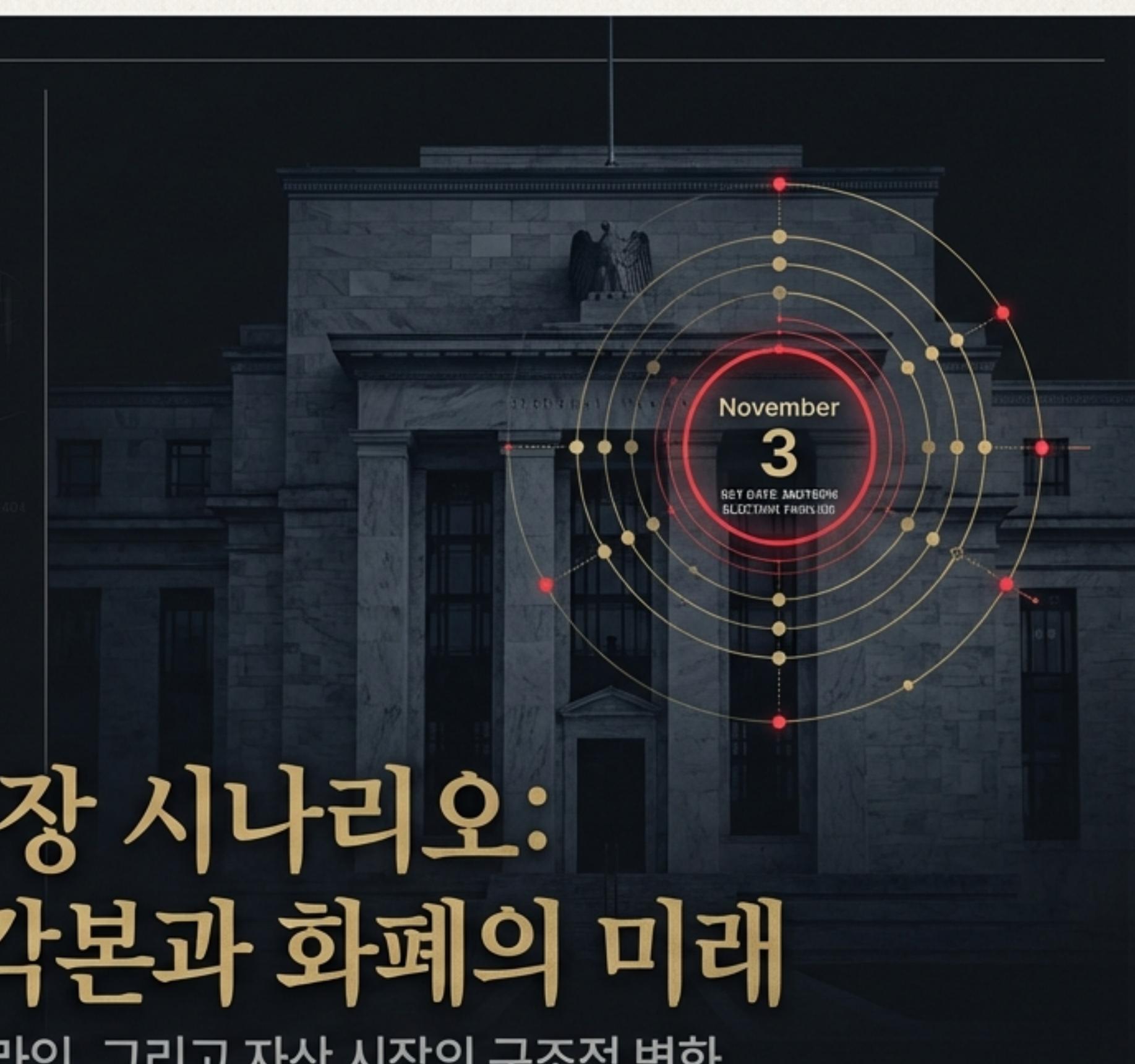




2025년 시장 시나리오: 연준의 새로운 각본과 화폐의 미래

케빈 워시 지명, 중간선거 타임라인, 그리고 자산 시장의 구조적 변화



STRATEGIC INSIGHT REPORT

트럼프의 역설: 왜 하필 ‘매파’ 케빈 워시인가?



Tiempos Headline
Trump (Pro-Grow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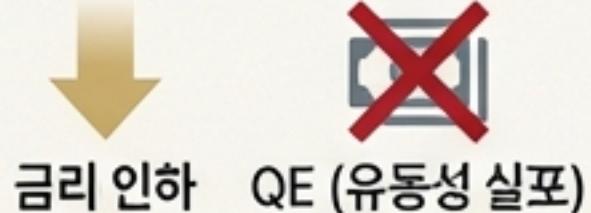
표면적 모순

주가 부양을 원하는 트럼프가
돈 풀기를 싫어하는 워시를 지명함.



워시의 성향

‘금리는 낮추되,
유동성 살포(QE)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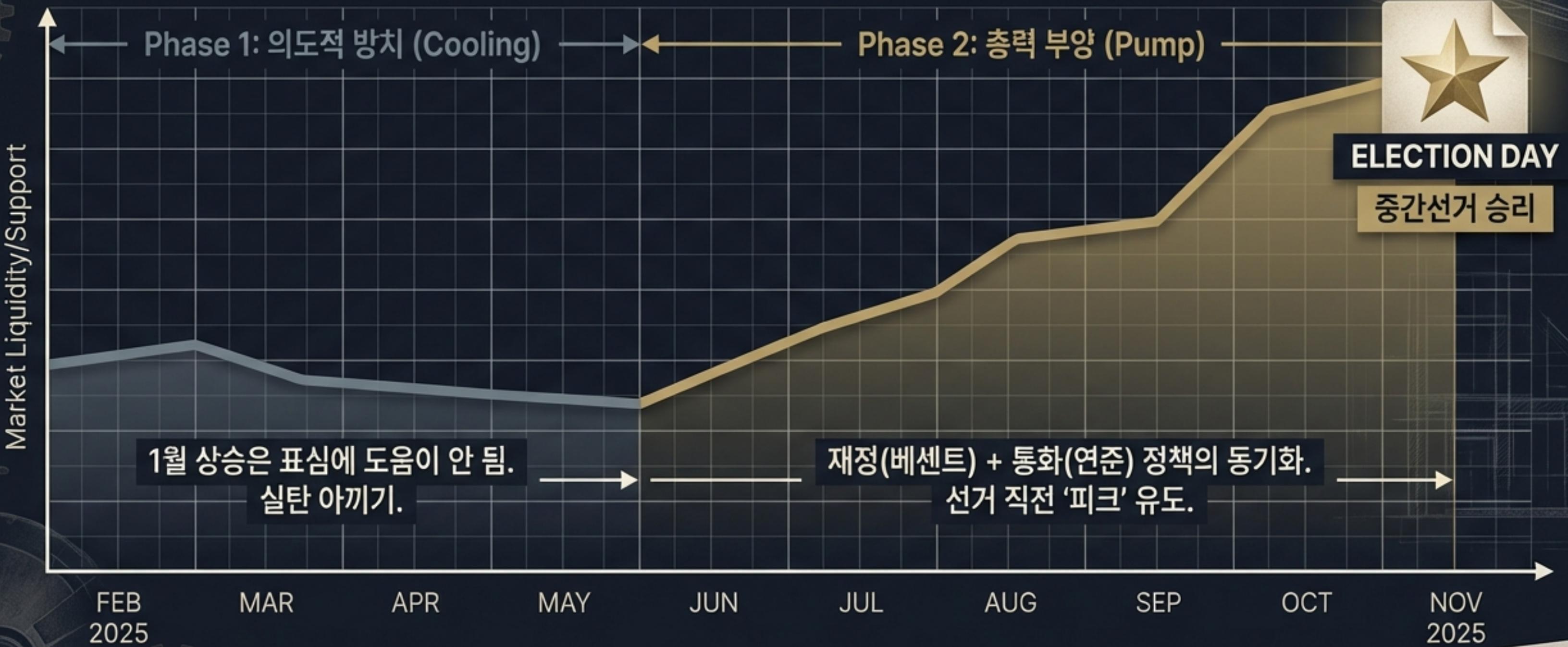
숨겨진 의도

시장의 신뢰를 가진
‘하이브리드’ 인물을 통해,
결정적인 순간(중간선거 전)에
더 강력한 **피벗(Pivot)**을
정당화하기 위한 포석.



Tiempos Headline
Warsh (Hawk)

베센트와 트럼프의 승리 방정식: 11월을 위한 2막 시나리오



CONFIDENTIAL

NotebookLM

금리 인하가 불가능할 때의 '플랜 B'



워시의 논리 (Warsh's Logic)

장기채 매입(QE)은 인플레를 유발하므로 반대,
그러나 단기 유동성(Repo) 공급은 시장 안정을 위해 찬성.
결국 하반기 유동성은 공급된다.

CONFIDENTIAL

NotebookL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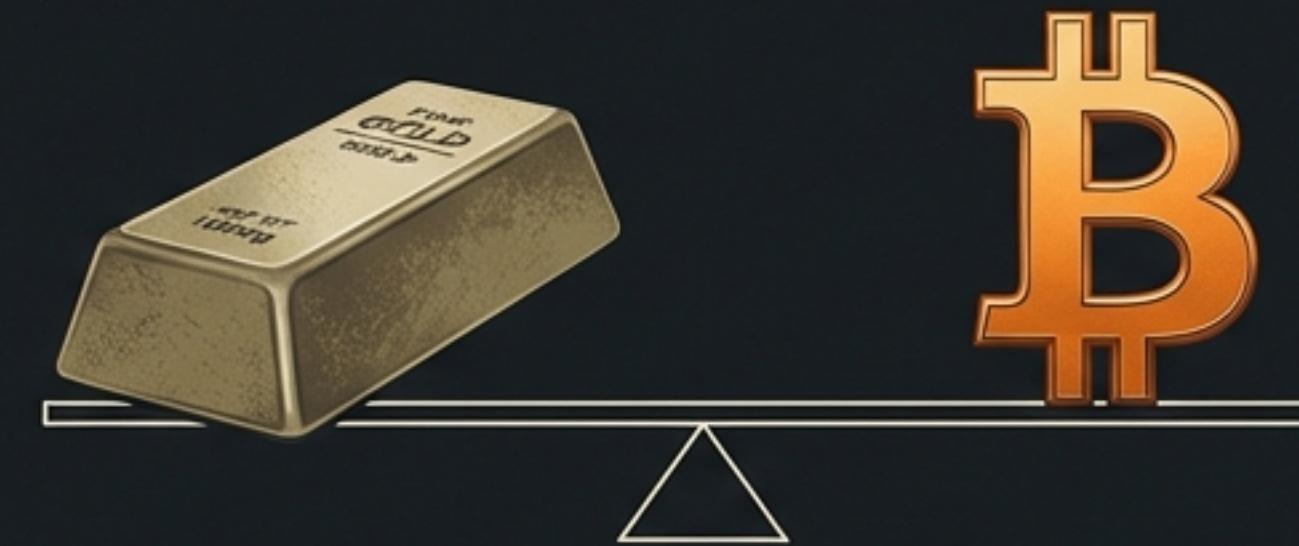
미국이 금을 버리고 비트코인을 택한다?

MYTH (루머)

"미국은 포트녹스에 금이 없다. 금을 폐기하고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선언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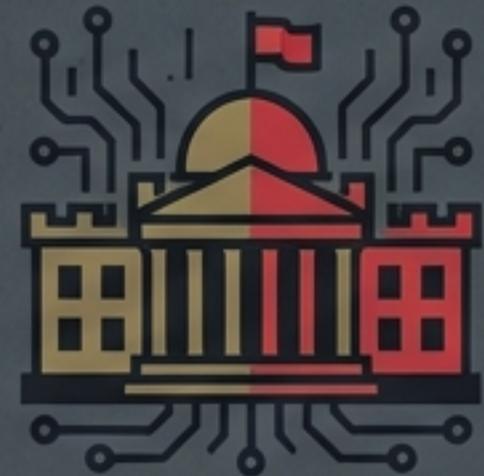
REALITY (진실)



- **팩트:** 미국 보유량 8,000톤 (세계 1위). 금 부정은 미국 신용의 자살 행위.
- **신시아 루미스 안:** 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금을 '재평가'한 차익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자는 것.
- **결론:** 금과 비트코인은 공존한다.

CONFIDENTIAL

자산의 본질: 글로벌 자산 vs 로컬 자산



로컬 자산 (Local Assets)

특정 국가의 법과 신용에 의존.

- ◆ 원화(KRW), 부동산(Real Estate), 한국 국채 ◆



글로벌 자산 (Global Ass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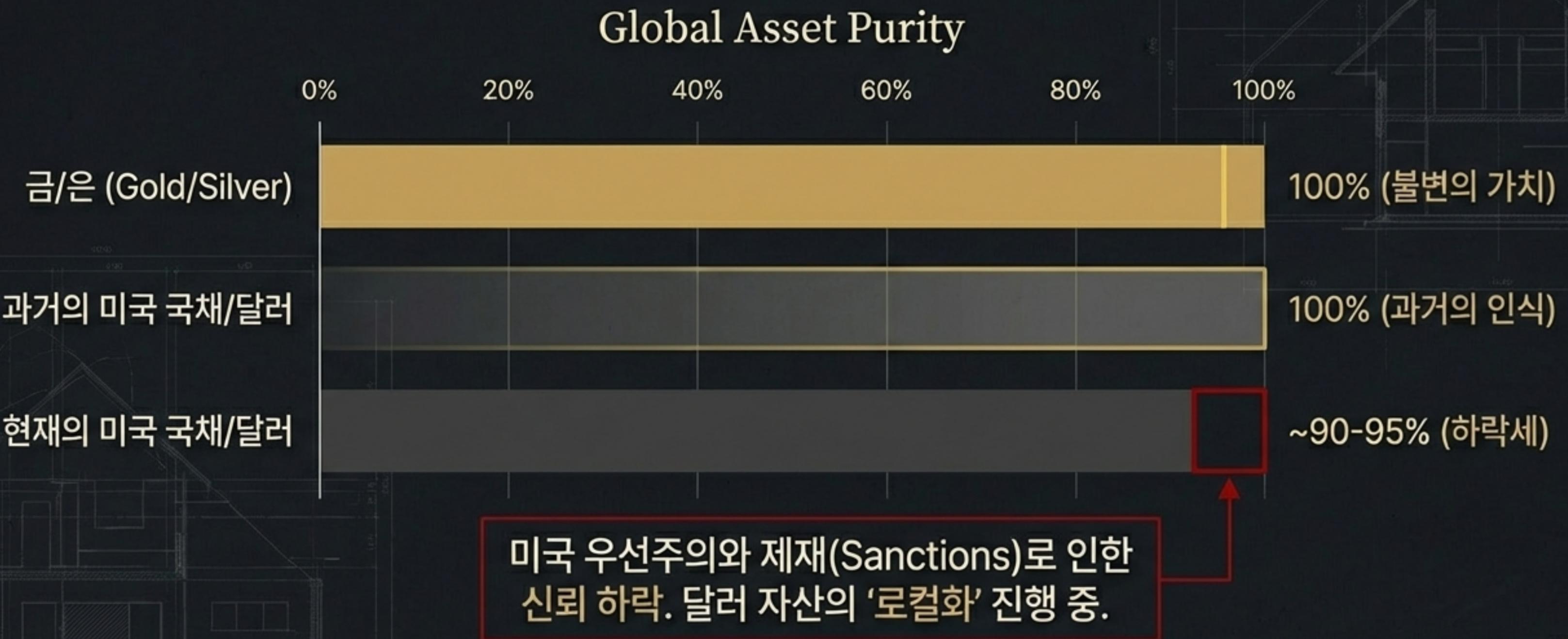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 전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음.

- ◆ 금(Gold), 은(Silver) ◆

위기 시에는 국가 리스크가 없는 '글로벌 자산'이 진짜 돈이다.

CONFIDENTIAL

달러와 국채의 지위 하락



CONFIDENTIAL

비트코인의 딜레마: 제도권 편입의 양날의 검



미국 유동성 연동
(Beta)



BRICS의 배척



- ◆ 과거: 탈중앙화된 완벽한 글로벌 자산.
- ◆ 현재 (2025): 미국 ETF/제도권 편입 → 미국 유동성에 따라 움직이는 자산.
- ◆ Implication: 미 연준이 돈을 풀면 오르고, 죄면 내린다.

CONFIDENTIAL

2025 투자 전략: 5월의 랠리와 11월의 리스크

2025



주의: 스마트 머니는 선거 결과를 기다리지 않는다. 11월 전 이탈 가능성.

CONFIDENTIAL

핵심 요약 (Key Takeaways)

1

정치적 각본: 상반기 냉각, 하반기 부양.
트럼프와 베센트는 10월의 고점을 원한다.

2

유동성의 경로: 금리 인하(Plan A)가 막히면
레포 시장(Plan B)이 열린다.

3

자산의 경쟁: 달러의 로컬화 속에서 금(100% 글로벌)과
비트코인(미국 유동성 베타)의 경쟁은 계속된다.

4

4년차 랠리의 끝: 모든 자산이 오르는 구간 뒤에는 옥석 가리기와
스마트 머니의 이탈이 기다린다.

